

불어권 언론 매체의 동해 표기 명칭 고찰*

임은진** · 이상균***

A Study on the Name of East Sea in the Francophone Media Source*

Lim, Eunjin** · Yi, Saangkyun***

요약 : 지명은 특정 물리적 공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권력 관계를 표상하고 있다. 특히 동해는 우리나라 영역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명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일본해와 경쟁관계에 있는 지명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동해 지명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점차 그 권력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를 제외한 주요 불어권 국가의 방송사·신문사의 실제 기사와 방송 내용 분석을 통해 동해 관련 표기 명칭의 현 상황을 도출하고, 프랑스에서 생산된 표기 명칭이 불어권 각 국가로 확산되는 과정과 영향력을 지명의 권력 관계 측면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불어권 국가 중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서유럽의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퀘벡을 주요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북아프리카 알제리와 룩셈부르크 언론 매체는 동해 표기에 비호의적인 경향을 보인 반면, 벨기에와 퀘벡은 비교적 호의적이었다. 대체로 불어권 국가들은 프랑스의 AFP 통신으로부터 보도 자료를 제공 받고 있었는데, 동일한 기사라 하더라도 각 국가나 언론사에 따라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수하려는 매체가 있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동해를 병기 표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곳도 있었다. 이를 통해 지명 확산과 전파의 사회적·정치적 이해 관계와 지명에서 나타난 권력관계, 대중적 지형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지명, 사회적 지명, 동해, 일본해, 불어권

Abstract : The name of a place represents the social and political power relations as well as showing a certain physical space. In particular, the East Sea is not only a representative name of areas represent our country, but also the name of place being in competition with the Sea of Japan internationally. Korea is committed in many ways to spread the name of East Se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gradually expand its name pow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ames used in the newspapers and broadcasting in Francophone countries except France by analyzing the newspaper articles and broadcasting contents, and to illuminate how the names of the East Sea produced in France, and the discussion about the names were diffused in Francophone countries and what kind of influence they had on those countries. This study selected Algeria in North Africa, Belgium and Luxembourg in West Europe, and Quebec in Canada for the research areas. As a result, while Algeria in North Africa and Luxembourg are showing inhospitality to the name East Sea, Belgium and Quebec are taking a flexible attitude toward this name. In general, most Francophone countries are provided with press releases from AFP in France. Even in same article provided by AFP, The result shows that some media stick to use the name Sea of Japan solely, and others demonstrate a will to use both name East Sea and Sea of Japan simultaneously. This study was able to show that the diffusion and spread of the place name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social, political interests and powers, the mess geopolitics in pop cultural materials.

Key Words : place names, social place name, East Sea, Sea of Japan, Francophone.

1. 서론

오늘날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양국 사이 바다의 지명 표기¹⁾와 관련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민감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남북한 유

엔 동시 가입 이후, 본격적으로 동해(East Sea) 지명 표기의 세계적인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해 단일 명칭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방해와 저지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지도제작사들 역

* 이 논문은 2015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 지원과제 ‘불어권 대상 동해 표기 관련 표기 명칭 확산 과정 분석’을 수정·보완한 것임.

**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ejlim21@kongju.ac.kr)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skygeo@gmail.com)

시 점차적으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기 시작하였다. 즉 동해는 해외에서 일본해와 같등하고 경쟁하면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해 나가고, 권력을 확대하고 있는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에게 이름이 있듯이 모든 지역과 장소에는 지명이 존재한다. 지명은 일정한 지역(장소)의 명칭으로 고대부터 인류가 살아오면서 특정한 위치 범위 유형의 지리적 실체에 대해 공동으로 약정한 고유명사이다(도수희, 2003). 이러한 지명은 직접적으로 인식된 공간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정치적 변화의 역사를 반영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민족이나 인구 이동, 언어의 확산과 음운 변화, 지표를 점유한 인간의 환경에 대한 지각과 변경, 환경에 대한 인간의 가치 평가와 관념 등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는 일종의 문화유산이며 지역성 파악에도 매우 유용한 요소이다(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8). 또한 지명을 둘러싼 사회 집단의 권력 관계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시기의 특정 집단의 사회적 해계모니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된다(권선정, 2004). 즉 지명은 특정 물리적 공간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권력 관계를 표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순배와 류제현(2008)은 명명 유연성에 따른 지명 생성과 변천 과정에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에 의해 그들이 소유한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에 부합되는 의도적인 지명 명명과 개정과정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지명의 의미를 둘러싸고 벌이는 갈등과 경합 과정은 지명이 지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말해준다고 하면서, 지명을 문화 정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지리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읽고, 해석하며 써나가는 과정이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문화, 담론, 권력과 지식 등의 문체와 결부될 수 밖에 없다(Agnew and Toal, 2002). 따라서 국가의 영토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일종의 지-권력(geo-politics)이다. 즉 지-권력이란 국가를 위해 작동하고,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리적 지식을 의미한다(이영민 등, 2011). 지난 세기는 정부 중심의 정책이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시행되었다면, 최근에는 민간부문의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제기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정부 방침도 민간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향은 지도 제작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입장보다는 상업적 이익이 우선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다양한 지도 관련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경합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주요 국가별 정부차원의 지명 표기 현황을 연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민간부문의 다양한 지도제작 주체들의 지명 표기 현황과 그들의 관심사 및 담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동해 표기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주요 국가별 정부입장 및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치중한 반면,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동해 지명에 대한 선행연구는 고지도와 고문헌 관련 연구(양보경, 2004; 정인철, 2010; 김종연, 2012; 심정보, 2013; 이상균, 2014 등), 지명 표기 관련 연구(이기석, 2004; 주성재, 2005, 2010, 2012; 김신, 2011; 심정보·정인철, 2011; 김순배·이상균·김영훈, 2015 등), 교과서 관련 연구(손용택·한관중, 2006; 심정보, 2013 등)이 있으며, 최근 북한 학자 황명철(2014)이 러시아 학술지에 동해표기의 정당성 및 일본해 표기의 부당성을 알리는 논문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대체로 일본해 명칭의 부당성을 일본제국주의의 산물로서 다루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나, 점차 동해 지명의 정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또한 연구에 활용되는 원자료 역시 고지도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점차 교과서와 해저지명, 최근 학계 트렌드 등으로 연구의 관점과 주제가 전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기석(1998)은 동해 명칭의 효율적인 확산을 위해 지도회사의 지도책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주요 신문과 방송 매체 등 언론 기관이 동해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민간 해외 지도 제작사 등 지도 제작 주체들의 지명 표기와 동해 지명의 해외 홍보와 관련해서는 최종남·심정보·윤옥경(2011) 등의 연구 외에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주로 영미권을 대상으로 한 지리교재 및 지도제작사의 지명표기 현황에 관한 연구에 한정되어, 다른 문화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프랑스는 18세기 이래로 영국과 더불어 전 세

계 지도제작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오늘날에도 지도제작에 있어 그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프랑스의 영향력은 유럽에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불어권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서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상균·김영훈(2015)은 프랑스의 민간 부문의 표기 명칭에 관한 연구에서 프랑스 정부가 일본해(mer du Japon) 단일 명칭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내 다양한 민간부문 지도제작사, 신문사, 방송사 등 지도제작 주체들이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를 제외한 주요 불어권 국가의 방송사, 신문사의 기사와 방송 내용을 분석을 통해 동해 표기 상황을 논하고, 프랑스에서 생산된 표기 명칭에 대한 답문이나 지도가 불어권 세계로 확산과정과 그 영향력에 대한 것들 지명의 권력 관계 측면에서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동해 지명 표기 연구에 있어서 정부에서 민간 즉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영미권 중심에서 프랑스 권으로 관점의 전환을 시도하였고, 동해와 일본해를 경쟁 관계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불어권 국가로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가 있으며, 서유럽에서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이 있고, 아메리카에서는 캐나다의 퀘벡 등지를 꼽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서유럽의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퀘벡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

연구 대상 국가의 대표적인 신문사와 방송사의 한국과 일본 열도 사이 바다의 지명 표기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최근 6년간(2010년~2015년) 해당 방송사 또는 신문사의 동해 관련 지명 표기와 관련된 기사를 전수 조사한다. 두 번째, 원자료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 혹은 언론사별로 한국과 일본열도 사이 바다의 지명 표기 경향을 분석하고, 동해와 일본해와의 권력 관계와 경합 등을 통해 각 국가별 동해 지명에 대한 특징과 이데올로기를 도출한다. 세 번째 프랑스 자료와의 상호 연관성 및 특징 분석을 통해 프랑스와 불어권 국가들 간의 동해 지명에 대한 권력 관계를 분석한다. 네 번째 각 방송사나 신문사의 지도담당 또는 표기 명칭 담당자와의 인

터뷰를 통하여 불어권 국가의 동해 지명 표기에 대한 이데올로기, 갈등, 권력 관계 등을 도출한다.

2. 불어권 주요 언론사의 동해 지명 표기 현황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설정한 불어권 국가는 서유럽의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북미의 캐나다 퀘벡,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등 총 4개국이다. 조사대상 언론사는 벨기에 3개사(신문사 2, 방송사 1), 룩셈부르크 2개사(신문사 1, 방송사 1), 퀘벡 2개사(신문사 1, 방송사 1), 알제리 2개사(신문사 1, 방송사 1) 등이다.

1) 독립적인 벨기에 언론매체

벨기에는 베네룩스 3국의 하나로, 네델란드어(56%), 불어(32%), 네델란드어-불어 공용(브뤼셀 지역, 11%), 독일어(1%)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벨기에의 대표적인 언론매체 3개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는데, 'Le Soir'²⁾, 'Le Libre Belgique'³⁾라는 신문사 2개와 RTL-TVI 방송사⁴⁾이다. <표 1>은 연구대상 신문사와 방송사의 최근 6년(2010~2015)간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에 대한 지명 표기 방법과 해당 기사 주제 등을 도표화한 것이다.

'Le Soir' 사의 해당 수역에 관련된 기사를 2000년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사에서 '일본해' 단일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기사를 보면, 해당 수역과 관련된 기사는 모두 5건이었는데, 이 중 일본해로 단독 표기된 것이 3건, 동해 병기 형태로 표기 한 것이 2건, 동양해(mer Orientale)와 병기 표기 한 것이 1건 있었다. 또한 'La Libre Belgique' 기사 중 해당 수역과 관련된 기사는 6건 있었는데, 일본해 단독 표기 3건, 동해 병기 2건, 동양해 병기 1건 이었다. 그리고 방송사인 RTL-TVI의 경우 이 수역과 관련된 기사는 9건 있었는데, 일본해 단독표기 4건, 동해 병기 4건, 동양해 병 1건이었다. 대체적으로 기사의 주제는 북한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으며, 독도 관련기사나 태풍이나 지진등과 관련된 기사도 있었다.

Le Soir 기사 중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한 기사

표 1. 벨기에 주요 언론 매체의 동해 표기 현황

매체	이름	날짜	분야	주제	지명 표기 방법
신문사	le Soir	20120909	독도	독도 관련 미국측 입장	mer du Japon
		20120919	독도, 영토	중일 간 영토 분쟁, 독도 한일 간 분쟁 사례	mer du Japon (mer de l'Est pour Séoul)
		20121010	문화	싸이 강남스타일	mer du Japon
		20130409	북한	북한 핵 도발 위협	mer du Japon (mer de l'Est pour Séoul)
		20140629	북한	북한 미사일 발사 사건, 중국 국가주석 한국 방문 향의	mer Orientale (mer du Japon)
		20140713	북한	북한 미사일 (한미 공동 군사작전향의)	mer du Japon
	La Libre Belgique	20110714	독도, 영토	한국인의 독도주변 시범 비행	mer du Japon
		20130409	북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 일본 활동	mer du Japon (appelée mer de l'Est par les Coréens)
		20140322	북한	북한 미사일 발사 중지 요구	mer du Japon
		20140629	북한	북한 미사일 발사사건, 중국 국가주석 한국 방문에 대한 향의	mer Orientale (mer du Japon)
20140814		북한	북한 미사일 발사 사건, 교황 프란체스코 한국방문	mer de l'Est (mer du Japon)	
20150302	군사	한국 미국 군사작전	mer du Japon		
방송사	RTL-TV1	20110315	자연 (지진)	일본지진과 방사능	mer du Japon
		20130315	북한	북한미사일도발에 대한 미국 측 대응	mer du Japon (appelée mer de l'Est par les Coréens)
		20130414	북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일본 측 행동	mer Orientale (mer du Japon)
		20130518	북한	북한 한미 군사합동작전 향의로 동해 미사일 발사	mer du Japon
		20140404	문화	한일 간정 정치 불협화음과 K-pop	mer du Japon (appelée mer de l'Est par les Coréens)
		20140406	북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일본 측 행동	mer du Japon (mer de l'Est, selon les Coréens)
		20140629	북한	북한 미사일 발사, 중국 국가주석 한국 방문에 대한 향의	mer Orientale (mer du Japon)
		20150825	자연 (태풍)	태풍 고니 일본 큐슈 지방 강타	mer du Japon

를 보면, mer du Japon(mer de l'Est pour Séoul) 이라고 표기하고 있다(그림 1). 괄호 안에 쓴 것은 '서울에서는 동해라 부름'이라는 뜻으로, 사실상 일본해와 동해의 동등한 병기법이라고 하기 보다

는 과도기적인 표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본해가 지명 권력 상 위위라고 할 수 있다.

벨기에의 3개 언론사 모두 2014년 6월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한국 방문에 대한 향의로 북

La fièvre anti-Japon monte dangereusement en Chine

D'autres litiges

Outre les îles Diaoyu/Senkaku(notre photo), d'autres îles du Pacifique font l'objet d'un contentieux territorial.

Rochers Liancourt(**Dokdo en coréen, Takeshima en japonais**) : administrés par la Corée du Sud depuis 1951, ces deux îlots rocheux situés en mer du Japon(mer de l'Est pour Séoul) et revendiqués par Tokyo ne sont habités que par un contingent de policiers sud-coréens.

KIESEL, VERONIQUE, Page 7, Mercredi 19 septembre 2012

그림 1. Le Soir의 일본해와 동해 병기 기사 일부

La Corée du Nord lance deux missiles qui échouent en mer

“Le Nord a tiré deux missiles vers la mer Orientale(mer du Japon) depuis la côte Est du pays”, a indiqué à l'AFP un porte-parole du ministère sud-coréen de la Défense, refusant de préciser le type d'engin lancé. Selon l'agence sud-coréenne Yonhap, qui cite un responsable militaire, il s'agissait de missiles Scud à courte portée, soit environ 500 km.

... 중략...

Jeudi, la Corée du Sud avait déjà annoncé le lancement par le Nord de trois engins, également à courte portée et en mer du Japon. Le geste avait été considéré comme une démonstration de force de la part du régime nord-coréen à l'approche de la visite à Séoul du président chinois Xi Jinping, les 3 et 4 juillet.

AFP Publié le dimanche 29 juin 2014 à 08h20 – Mis à jour le dimanche 29 juin 2014 à 09h46

그림 2. 동양해와 일본해 병기 사례 관련 신문 기사 일부

축이 동해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동해(mer de l'Est) 대신 동양해(mer Orientale)로 표기하고 있으며, 동양해를 먼저 쓰고 일본해(mer du Japon)를 괄호 안에 쓴 것이다(그림 2). 그러나 기사 끝에서는 일본해 단독 표기를 하고 있었으며, 언론사 모두 신문 기사의 출처를 AFP로 밝히고 있다. 양보경(2004)은 조선시대의 고지도에 한국의 동쪽 바다를 부를 때 소수이기는 하나 동양해(東洋海)로 표기한 것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동양해(mer Orientale)는 유럽인들이 17세기부터 불러왔던 명칭 중 하나로 오늘날에도 동해를 동양해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지명의 특성인 고착성이나 지속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방송사인 RTL-TVI 사의 동해와 관련된 최근 뉴스를 살펴본 결과, 2013년 이후 기사에서 동해

와 일본해 병기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또한 많은 기사가 북한과 관련되어 있거나, 한일 간의 정치적 불협화음에 관한 것이었다.

벨기에의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들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명칭을 대부분 '일본해' 단일 지명으로 표기 하고 있었다. 동해 지명과 병기 한 경우에는 일본해를 앞에 표기하고, 동해 명칭은 괄호 안에 처리하면서 '한국인들은 동해라고 부른다'와 같은 부연 설명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La Libre Belgique의 2014년 8월 14일 기사인데, 교황 프란치스코의 한국 방문을 즈음하여 북측이 동해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음을 전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동해(mer de l'Est)에 대해 뒷부분에 부연 설명을 없애고, 괄호 안에 일본해(mer du Japon)를 기입하고 있는 불어권 언론사 중 유일하게 동해 중심 지명 표기가 있었다.

En Chine, au bord du fleuve Amour, les souvenirs amers des descendants d'exilés russes
 AFP - lundi 31 août 2015
 Pékin contrôle encore assez étroitement le sujet de la Révolution culturelle, mais les médias chinois ont pu rapporter au cours des dernières années l'histoire de ces villageois.
 Les relations entre la Chine et la Russie se sont réchauffées avec Deng Xiaoping et les deux pays ont finalement résolu leurs derniers conflits frontaliers en 2004.
 Ils s'entendent désormais souvent sur les votes au Conseil de sécurité de l'ONU, la Chine est un marché clé pour le pétrole et le gaz russe, et des exercices militaires conjoints sont organisés, de la **mer du Japon** à la Méditerranée.
 ...〈이하 생략〉...

그림 3. RTL의 일본해 단독 표기 기사 일부

많은 신문 기사가 프랑스의 AFP통신의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인용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의 지명 표기 관련 영향력이 불어권 국가 언론사에도 사실상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일본해를 선호하는 룩셈부르크 언론 매체

룩셈부르크는 서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나라로 프랑스, 독일, 벨기에와 접경한 내륙국이다. 총인구는 약 54만 명으로 룩셈부르크인(63.1%), 포르투갈인(13.3%), 프랑스인(4.5%), 이태리인(4.3%), 독일인(2.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룩셈부르크

고유어는 일상 생활어로 사용하고, 프랑스어·독일어는 행정적인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ssentiel 신문사⁵⁾와 RTL방송사⁶⁾ 기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L'essentiel 사의 최근 기사를 살펴본 결과, 일본해로만 단일 지명 표기를 하고 있었다. L'essentiel 사 역시 AFP로 부터 같은 기사를 제공 받고 있는데, 벨기에의 신문사와 방송사는 한국과 일본 열도 사이 바다를 다양하게 지명 표기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L'essentiel은 의도적으로 '일본해'로만 표기하고 있었다. 그 사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한 것에 대한 항의로 북한이 동해를 항

표 2. 룩셈부르크 주요 언론 매체의 동해 표기 현황

매체	이름	날짜	분야	주제	지명 표기 방법
신문사	L'Essentiel	20130520	북한	북한 5개의 미사일 발사	mer du Japon
		20140629	북한	북한 미사일 발사중국 주석 한국방문 항의	mer du Japon
		20150302	북한	북한미사일발사, 한미합동군사훈련항의	mer du Japon
		20150512	자연 (태풍)	일본 오키나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 태풍 노을	mer du Japon (sea of Japan)
		20150825	자연 (태풍)	태풍 고니 일본 남서부지방강타	mer du Japon
방송사	RTL	20150630	사회	일본 신칸센에서 자살 시도	기타(무표기)
		20150717	자연 (태풍)	태풍 냥카 일본해로 가기 전 혼슈 강타 예정	mer du Japon
		20150811	자연 (원전)	후쿠시마 원전	mer du Japon
		20150831	문화, 이주, 정치	러시아 출신 이주자 역사, 중러 일본해에서의 공동군사훈련	mer du Japon

해 미사일을 발사했음을 전하는 기사(2014.6.29)는 AFP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다. 이와 동일한 기사가 벨기에의 La Libre Belgique사에서 있는데, La Libre Belgique 사가 동양해(mer Orientale)와 일본해(mer du Japon)를 병기한 것 달리, L'essentiel 사는 두 차례에 걸쳐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었다.

RTL사의 동해수역에 관련된 최근 뉴스를 살펴본 결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거나, 아예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수역에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기사는 AFP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다음 기사는 중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출신 이주자들의 역사를 다루는 기사로 소비에트연방 시절 이들은 중국에서 많은 차별과 감시를 받았으나, 오늘날은 중국과 러시아가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인식도 차츰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전하고 있으며, 양국이 협력관계임을 보여주는 한 예로 일본해(mer du Japon)에서의 공동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한국이나 일본과 관계없는 제3국에 관한 기사를 다루면서도 '일본해' 만 단독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표 2〉는 룩셈부르크의 신문사와 방송사의 동해 표기 방법에 대한 것을 목록화한 것으로 거의 모든 동해 표기가 일본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룩셈부르크에서의 동해 지명을 영역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고, 일본해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캐나다 언론 매체

퀘벡은 캐나다에서 가장 넓은 주로 캐나다 동부에 있으며 인구는 약 800만명 정도이다. 이 지역에는 프랑스계 이민 후손들이 정착해 살고 있으며, 퀘벡 주민의 80%가 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신문사인 La Presse⁷⁾와 방송사인 TVA⁸⁾를 대상으로 하였다.

La Presse사의 동해수역 표기와 관련된 최근 기사를 살펴본 결과, 일본해 단일표기가 많았지만, 그 외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 동양해와 일본해 병기, 동양해 단일표기, 무 표기 등 다양하게 해당 수역을 표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바다 명칭을 삭제한 지도도 여러 차례 발견되었다. 또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동해(mer de l'Est), 동양해(mer Orientale), 일본해(mer du Japon)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북한의 동해안에 면한 바다(la mer sur la côte orientale de la Corée du Nord)'라는 새로운 지명 표기 방법을 사용한 것도 있었다(그림 4). 이는 동해 지명 표기로 인한 한일 양국 간의 갈등관계를 의식하여 어느 쪽과도 불편한 관계를 피하려는 의도라고도 할 수 있으며, 한국이나 일본과 관계없이 북한과 같은 제3자의 입장에서 해당 수역 명칭을 지칭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방송사인 TVA 사의 동해수역 표기와 관련된 최근 뉴스를 살펴본 결과, 일본해 명칭 단독표기, 동해와 일본해 병기, 무 표기 등 다양한 방법을

La Corée du Nord lance 4 missiles

Agence France-Presse
SEOUL

La Corée du Nord a effectué jeudi un tir d'essai en mer de quatre missiles à courte portée, a annoncé le ministère sud-coréen de la Défense, au moment où Washington et Séoul effectuent des manoeuvres critiquées par Pyongyang.

Les missiles nord-coréens ont été tirés en direction de **la mer sur la côte orientale de la Corée du Nord**, a indiqué un porte-parole du ministère sud-coréen. Ils avaient une portée de 200 km. (이하 생략)

Publié le 27 février 2014 à 07h24 | Mis à jour le 27 février 2014 à 11h 08

그림 4. '북한의 동해안에 면한 바다'라고 표기한 신문 기사 일부



그림 5.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지도를 활용한 방송 사례

표 3. 캐나다 주요 언론 매체의 동해 표기 현황

매체	이름	날짜	분야	주제	지명 표기 방법
신문사	La Presse	20100724	군사	한미 합동 군사 훈련 동해에서 실시	mer du Japon
		20121120	정치, 영토	한중일 3국 영토분쟁보다 자유무역지대 구축	mer du Japon
		20130401	북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관계 주요 사건요약 기사(2012.2~2013.3)	mer Orientale
		20130802	군사	중국 러시아 동해에서의 합동 군사 훈련 중국 군함 일본 열도 일주	mer du Japon
		20140227	북한	북한 미사일	북한의 동양해
		20140626	북한	북한 미사일 발사-중국 국가주석 한국 방문항의	mer du Japon (mer de l'Est)
		20140628	북한	북한 미사일 발사-중국 국가주석 한국 방문항의	mer Orientale (mer du Japon)
		20140708	북한	북한 미사일 발사-중국 국가주석 한국 방문항의	mer du Japon
		20140709	자연 (태풍)	태풍 너구리	기타(무표기)
		20140710	자연 (태풍)	태풍 너구리	기타(무표기)
		20140714	군사	한미 합동 군사훈련	기타(무표기)
		20140811	자연 (태풍)	태풍 할롱 일본 강타	mer du Japon (mer de l'Est)
		20150825	자연 (태풍)	태풍 고니	기타(무표기)
방송사	TVA	20110311	자연 (쓰나미)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	기타(무표기)
		20120617	자연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거주지 (중국/한반도동북부/일본해)	mer du Japon
		20130407	북한	북한의 위협	mer du Japon (mer de l'Est)

사용하고 있었다. <그림 5>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는 지도를 활용한 방송의 일부를 캡처한 것이다. 의미있는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동해가 먼저 나오고 일본해가 뒤에 나오는 형태로 지명을 표기했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방송사와 신문사들은 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행보, 일본의 쓰나미 위험, 태풍의 진로 등과 관련하여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바다를 언급하거나 다루고 있다. La Presse사에서는 주로 구글 지도를 자료화면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지도상에서는 민감한 지명 표기는 모두 삭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퀘벡의 민간방송사들 중 하나인 TVA사 역시 신문사와 마찬가지로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것이 대다수였으나, 점차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다.

캐나다 퀘벡은 불어권이지만, 프랑스 본토와는 지리적으로도 먼 거리에 위치해 있고, 같은 캐나다에서 영어를 쓰는 지역 및 미국, 영국과도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므로, 동해 표기 관련 기사의 유형이 기타 서유럽 불어권 국가들의 사례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일본해로만 표기하는 알제리 언론사

알제리는 아프리카 대륙 북서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공화국으로 총 인구는 3천만 정도이며, 원주민인 베르베르인과 7세기부터 정착한 아랍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공식어는 아랍어이며 타마지

트어도 사용되고 있다.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프랑스어가 교육이나 업무적인 면에서 폭넓게 통용되고 있으나, 불어권 국제기구의 정회원국은 아니다. 알제리 지역에서는 El-Watan⁹⁾이라는 신문사와 Ennahar TV¹⁰⁾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El-Watan사의 동해수역에 관련된 기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일본해로 지명 표기를 하고 있었다. AFP로 부터 제공 받은 기사를 그대로 신기도 하지만, El Watan 기자들의 논평도 적지 않다. 모든 표기가 일본해였으나, 한국과 알제리의 교류증진을 해야 한다며 한국을 소개하는 기사에서만 예외적으로 한국의 동해로 지명표기 하고 있다(그림 6).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한국과 알제리가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공통의 아픈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런 과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을 모델로 삼아 알제리 역시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자는 한국인들이 알제리를 잘 모른다면 다방면에서 두 나라의 교류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알제리 독자들을 위해 한국인들은 일본해(mer du Japon) 대신 동해(Mer de l'Est)라 부르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과 알제리의 교류증진에 관한 기사이다 보니 한국인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기자는 동해 지명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명 표기에 있어서는 국가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2010년 12월 7일부터 시작된 아랍의 봄 이후, 반정부적인 리더들은 시민들의 여론을 이끌어갈 대안적인 언론에 주목, 대부분의 민간 방송사가

La Corée du sud aspire à être la 7e puissance économique mondiale : Un modèle à suivre pour l'Algérie

le 10/05/2010 | 22:52

...<전략>...

Cette présence japonaise dans la péninsule coréenne avait été tellement dure qu'elle a laissé des stigmates visibles dans le pays du Matin calme. Dans l'île de Jéju-Do, dans le sud, le Japon est toujours appelé «ennemi». Les Coréens préfèrent toujours parler de mer de l'Est au lieu de mer du Japon pour désigner cette étendue aquatique qui les sépare du pays du Soleil levant, jadis empire dominant.

...<이하 생략>...

그림 6. 동해 지명을 소개한 신문 기사 중 일부

표 4. 알제리 주요 언론 매체의 동해 표기 현황

매체	이름	날짜	분야	주제	지명 표기 방법
신문사	EL-Watan	20100510	정치	한국인은 일본해 대신 동해라 부르는 것 더 선호, 한국과 알제리의 교류 증진 지사	mer du Japon (mer de l'Est)
		20100725	북한	한미 군사 훈련이 북한 자극	mer du Japon
		20100809	정치, 영토	동해안에서 조업중이던 한국어선 북한 억류	mer du Japon
		20130519	북한	북한 미사일	mer du Japon
		20140828	자연 (지진)	일본지진, 쓰나미	mer du Japon
방송사	Ennahar TV	20100503	자연 (지진)	일본지진	무표기
		20130518	군사	북한 단거리 미사일 일본해 향해 발사	mer du Japon
		20150513	자연 (지진)	일본 북동쪽 해안 강도 6.8지진발생	무표기
		20150525	자연 (지진)	동경에서 진도 5.6 지진발생	무표기
		20150825	자연 (태풍)	태풍 고니 일본해로 진로 변경	mer du Japon

이 시기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알제리의 민간 방송사들은 경영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중의 몇몇은 벌써 방송을 중단하였다.

알제리 민영방송사들 중에 하나인 Ennahar TV 사의 동해수역에 관련된 뉴스를 분석한 결과, 일본해 단일 명칭을 사용하거나 지도상의 동해 수역에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프랑스와 불어권 언론사의 동해 표기 권력 관계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퀘벡, 알제리의 주요 언론사와 신문사의 2010년 이후 부터 현재까지의 동해 표기 방법을 종합 정리하면, 일본해가 35건,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 한 것이 12건, 일본해와 동양해를 병기한 것이 5건, 무표기 8건, 북한의 동해 1건으로 나타났다(그림 7). 이처럼 현재 동해 지역의 지명 표기의 권력은 일본해가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고, 계속적으로 증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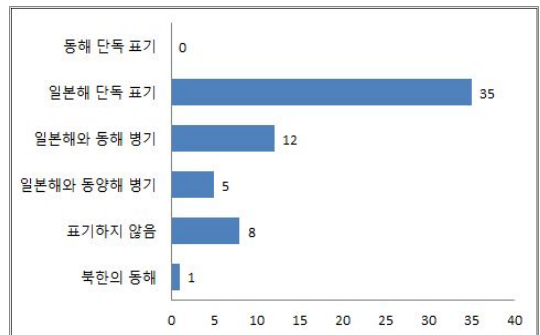


그림 7.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 명칭 표기 건 수

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해 지명 표기의 영역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에 대해 언급되는 기사는 <그림 8>과 같이 주로 북한과 관련된 기사의 경우가 71%(41건)으로 압도적이었으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태풍이나 지진 등 재해에 대한 것이 각각 9%, 15%로 나타났다. 한중일의 정치적인 협력이나 갈등에 대한 것을 기사화 할 때도 해당 수역이 언급되거나 지명 표기 되는 경우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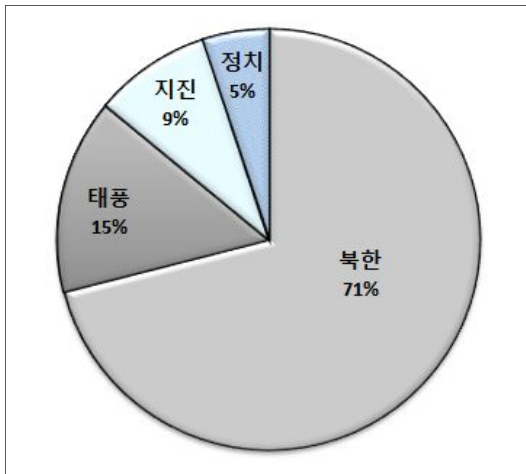


그림 8.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가 언급된 기사 주제

북한 기사가 많은 이유에 대해 AFP통신 한국지국 특파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면 다음과 같다.

아무리 좋은 기사를 AFP통신에서 취재해서 써도 각국의 크라이언트들이 관심이 있어야 기사화 되는데, 북한은 오히려 남한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북한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기사화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어권 언론사 기사의 대부분이 프랑스 AFP통신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도함에 따라 프랑스 언론사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동해 지명 표기에 있어서 프랑스 언론의 영향력과 권력은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벨기에 언론사는 AFP통신 발 기사를 보도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병기하여 기사화 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룩셈부르크

나 알제리의 언론사들은 일본해 단일 지명 표기를 선호하고 있었다.

동해 지명 표기와 관련하여 각 언론매체 별로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개별 언론사에는 명칭에 관한 그들만의 표준적인 방침이 있는데, 그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스타일북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다음 자료는 AFP 통신 특파원이 보내준 이메일 중 관련 내용을 전사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있는 글로벌 언론사들은 대부분 지리적 명칭과 기타 고유명사를 표기하는 것에 관해 명기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stylebook이 있습니다. 저희 가이드라인인 AFP Style Book에 나온 독도/동해 명기원칙은 아래와 같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일본 표기법을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AFP 기사는 모두 이 표기법에 따라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사를 가져간 클라이언트들이 어떻게 기사를 수정하고 고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지 못합니다.

Dokdo : Japan and South Korea dispute the ownership and name of these small rocky islands in waters controlled today by South Korea. Give Dokdo islands (the Korean version) first, then Takeshima (the Japanese version).
Sea of Japan (East Sea): Write it thus..

위에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AFP에서의 동해 표기 방법은 일본해와 동해의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AFP통신이나 붙어권의 언론사들은 이것을 무조건 준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표 5>는 AFP통신 발 기사에서 나온 지명 표

표 5. 동일한 AFP통신 발 기사와 각국의 지명 표기 사례

날 짜	기사 출처	언론사 명	국가 및 매체 분류	지명 표기
2014.06.29	AFP	La Libre Belgique	벨기에 신문사	mer Orientale, mer du Japon
		RTL-TVI	벨기에 방송사	mer Orientale
		L'Essentiel	룩셈부르크 신문사	mer du Japon
2015.08.25	AFP	RTL-TVI	벨기에 방송사	mer du Japon
		L'Essentiel	룩셈부르크 신문사	mer du Japon
		La Presse	캐나다 신문사	무표기

기가 불어권 각국에서 어떻게 다르게 표기되는 지 알 수 있는 사례이다. 2014년 6월 29일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 것에 대한 향의로 북한이 동해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내용과 관련된 AFP 발 기사인데, 신문사별로 해당 수역을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또한 2015년 08월 25일 태풍 고니가 일본 남서부지방을 강타하고 북서쪽의 일본해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AFP통신에서 제공받은 기사에 대해 대부분의 불어권 신문사는 동일한 기사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캐나다의 La Presse는 지도도 함께 게재하고 있는데, 이 지도는 2015년 판 구글 지도로 일본의 지도 데이터 업체인 zenrin에 의해 만들어진 지도이다. 본래의 지도에서는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바다 명칭이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바다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즉, 의도적으로 바다명칭을 삭제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AFP 통신으로부터 같은 기사를 받더라도, 각각의 개별 언론사의 재량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지명이 다르게 표기되어 보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해와 일본 사이의 바다에 대한 지명표기 관련 규정이 있는지와 프랑스 언론사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불어권 언론사 관계자들과 이메일, 전화 혹은 직접적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벨기에의 신문사 Le Soir, La Libre Belgique의 담당자와 인터뷰한 결과 동해 명칭과 관련하여 신문사 내부에는 어떤 원칙도 없음이 밝혀졌다. 인터뷰에 응한 Véronique Kiesel (Le Soir기자)는 일반적으로 기사를 쓸 경우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쓰도록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그녀가 쓴 2012년 9월 19일자 기사를 분석한 결과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 되어 있었다. Scholasse Etienne(La Libre Belgique의 지도제작 담당자)도 동해 명칭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이슈는 아니며, 자주 언급되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관된 명칭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였다. 실제 기사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Le Soir, La Libre Belgique의 경우 일본해 단독 표기가 다수이기는 하지만, 동해와 일본해 병기, 동양해 표기도 찾아볼 수 있다. 벨기에의 방송사 RTL TVI의 Jean-Pierre Martin는 일본해와 괄호 안에 동해 명칭을 함께 병기한다고 답했는데, 실제로 그

의 기사를 보면 일본해 단독표기와 동해 및 일본해 병기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룩셈부르크 L'Essentiel의 Denis Berche(편집장)은 동해 표기와 관련해 어떤 원칙도 없고, AFP에서 제공받는 기사를 그대로 쓴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 기사에서는 모두 일본해로 단독 표기되어 있었으며, AFP발의 2014년 6월 29일자 기사는 타사가 모두 동양해를 먼저 사용하고 일본해를 괄호 안에 기입한 것과는 달리 일본해 단독 표기만 하였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인터뷰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해당 언론사에서는 일본해 명칭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은 룩셈부르크의 RTL사 역시 일본해 단독 표기 또는 무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룩셈부르크에서는 일본해 단독 표기가 주류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서유럽의 불어권 언론사들은 AFP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 퀘벡의 경우에는 AFP로 부터 제공받는 기사도 많았지만, 캐나다의 영어권이나 미국의 언론사인 CNN뉴스, AP 등으로부터 뉴스를 제공을 받고 있어 다른 불어권 국가보다 융통성 있게 해당 수역의 지명 표기를 하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를 제외한 주요 불어권 국가의 방송사, 신문사의 기사와 방송 내용을 통해 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프랑스에서 생산된 지명 표기 방법이나 담론이 불어권 세계로 어떻게 확산되고 영향을 미치는가를 문화 정치 지리적 측면에서 밝히는 것이다. 서유럽의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퀘벡,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민간 언론사(신문사, 방송사)에서 다루고 있는 보도 자료를 분석하여 동해 관련 표기 명칭 현황을 양적·질적 연구를 실시하였고, 각 언론사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 내용을 검증하고, 실제적인 표기 명칭에 대한 프로세스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동해와 관련된 기사와 방송 자료는 약 60건 검색되었으며, 일본해가 35건으로 가장 많고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 표기 한 경우는 12건, 일본해와 동양해를 병기 표기한 것은 5건, 무표기

한 것은 8건, 북한의 동해라고 표기 된 것은 1건으로 나타났다.

동해가 언급되는 경우는 주로 북한과 관련된 기사의 경우가 71%(41건)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북한 기사가 많은 이유에 대해 AFP 기자와의 인터뷰 결과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남한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고 하였다.

각 국별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벨기에의 대표적인 신문사(Le Soir, La Libre Belgique)와 방송국(RTL-TVI)의 기사 중 동해 관련 명칭은 약 20개 검색되었다. 이 중 11개인 55%는 일본해(mer du Japon)이라고 표기 하였고, 8개는 일본해를 앞에 표기하고, 동해명칭은 괄호 안에 처리하면서 ‘한국인들은 동해라고 부른다(mer de l’Est pour les Coréens)’ 등과 같은 설명을 추가하여 부연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중 3건은 동양해(mer Orientale)와 일본해(mer du Japon)를 병기하였다. 동해가 일본해와 병기된 시점을 보면 2013년 이후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벨기에 신문사 Le Soir, La Libre Belgique의 담당자와의 인터뷰한 결과 동해 명칭과 관련하여 신문사 내부에는 어떠한 원칙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신문사(L’Essentiel), 방송사(RTL)의 해당 수역과 관련된 기사는 약 9건 검색되었는데, 모두 다 일본해(mer du Japon)만 단독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벨기에 언론사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보도 자료를 프랑스의 AFP로부터 제공받아 쓰고 있는데, 벨기에의 일부 기사의 경우는 언론사 의지대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 언론사의 경우는 AFP로부터 같은 기사를 제공받아 쓰면서도 의도적으로 일본해 단독 명칭만을 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룩셈부르크 L’Essentiel의 편집장인 Denis Berche는 동해 표기와 관련해 어떤 원칙도 없고, AFP에서 제공받는 기사를 그대로 쓴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 기사 분석 결과 모두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었다.

퀘벡의 신문사(La Presse)와 방송사(TVA)의 경우 해당 수역과 관련된 기사는 17건 정도 있었다. 이 중 7건은 일본해(mer du Japon)만 단독으로

표기하고 있었고, 3건은 동해를 병기하고 있었다. 또한 아무것도 표기하지 않은 것이 4건이었다. 특이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기사에서 북한의 동쪽바다(la mer sur la côte orientale de la Corée du Nord)라고 표기한 것이 한 건 있었다. 캐나다 퀘벡의 경우에는 AFP로 부터 제공받는 기사도 다수 있었으나, 캐나다의 영어권이나 미국의 언론사들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사검색을 하면서 CNN뉴스, AP 등에서 뉴스를 제공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알제리 신문사(El-Watan)와 방송사(Ennahar TV)의 동해 표기 관련 기사는 12건이었다. 이 중 민간 신문사들 중 하나인 El-Watan사의 경우,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해만 단독 표기하고 있다. 알제리의 경우에도 AFP로 부터 제공받고 있는 기사가 많은 것으로 보이나, 통신사의 이름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에이전시라고만 언급한 기사들도 발견되어 다른 통신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었다.

정리하면, 북아프리카 알제리와 룩셈부르크 지역이 동해 표기에 가장 비호의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벨기에와 퀘벡은 비교적 유연한 표기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연구 대상 국가의 언론사들은 공통적으로 프랑스의 AFP 통신으로부터 보도 자료를 제공받아 쓰고 있었다. 이를 통해 프랑스의 지명 표기 관련 영향력이나 지배력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간혹 국가나 언론사별로 일본해 명칭 단독 표기를 고수하려는 매체가 있기도 하고, 동해 표기를 병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곳도 있었다.

지리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읽고, 해석하며 써나가는 과정이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문화, 담론, 권력과 지식 등의 문제와 결부될 수 밖에 없다(Agnew and Toal, 2002). 에그뉴는 비판지정학적 개념화(critical geopolitics conceptualization)에 대하여 형식적 지정학, 실천적 지정학, 대중적 지정학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형식적 지정학은 시민사회에서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지식인들이나 국가 기구 및 제도들이 지닌 지정학적 논리체계를 코드화한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국제 정치를 특정한 공간 논리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천적 지정학은 외교 정책 형성의

실천적, 정치적 과정에 관여된 정치 지도자와 외교 정책 결정자들이 지니는 특별한 목적을 지닌 지정학적 논리 체계를 말한다. 그리고 대중적 지정학은 시각적 매체, 신문, 잡지, 소설 등과 같은 대중문화 표현물들을 통해 나타나는 정체성과 차이의 지정학적 논리를 말한다(현대문화지리학, 2011). 본 연구는 그동안 동해 지명에 대한 연구가 동해 명칭의 역사성과 지명으로서의 타당성을 강조한 것을 벗어나, 현재 불어권 국가에서의 동해 지명 표기의 실제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지명이 사회적이고 정치적 권력관계를 표상한다는 관점에서 프랑스와 불어권 여러 나라와의 기사 및 지명 관련 권력 관계, 그리고 동해와 일본해와의 지명 표기 권력 관계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또한 에 그뉴의 논의에 근거해서 본다면 기존 연구는 국가 중심의 형식적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였다면, 본 연구는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한 대중적 지정학 측면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연구가 시작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것이 많고, 5년 정도의 언론 매체 분석은 그 경향을 밝히는 것으로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추후 지속적인 연구와 시계열적인 접근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불어권 언론사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AFP 통신을 대상으로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동해 표기를 계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 동해를 홍보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문화와 환경이 상이한 각각의 국가나 언론사에 대해서는 각국의 사정에 맞게 서로 다른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동해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 해역의 세계적인 대표 표기 지명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력과 외교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지명으로서의 타당성을 더욱 완벽해야 일본해와의 지명 권력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주

- 1) 본 연구는 ‘동해’와 ‘일본해’의 지명 표기에 관한 것으로, 본문 중 중립적인 접근이나 위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이 표현하고자 함.

- 2) Le Soir은 브뤼셀 소재의 신문사로 1887년 Émile Rossel에 의해 창간된 불어권 일간지이다. 역사적으로 좌파성향의 자유주의 전통을 가진 진보적이고 독립적인 저널이다. 벨기에에서 불어권 일간지 중 Sud Press 그룹의 지역관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저널이다(Sud Press와 같은 그룹 계열사업).
- 3) La Libre Belgique은 브뤼셀 소재의 신문사로 1883년 《Le Patriote》라는 이름으로 카톨릭 정치계의 Auguste Berkers의 후원으로 Victor Jourdain에 의해 창간된 불어권 종합 일간지이다.
- 4) RTL-TVI는 룩셈부르크의 방송 기업인 RTL그룹 계열 방송국이며, 벨기에의 프랑스어 방송국이다. 1987년 9월12일 RTL-TVI라는 별도의 방송국으로 나뉘었으며 벨기에 최초의 불어권 민영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개국하였다. 2012년 기준 벨기에의 프랑스어권 지역에서 20%의 높은 시청률을 보유하고 있다. 자매 채널로 Club RTL, Plug RTL 등이 있다.
- 5) 룩셈부르크에는 현재 6개의 일간지(전국 배포)가 있는데, 그 중 두 개 만이 불어권 독자를 위한 신문이다. 이 중 L'Essentiel은 2007년 창간되었으며, 무료 신문으로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로 젊은 층을 겨냥하고 있다.
- 6) RTL Télé Lëtzebuerg는 룩셈부르크의 방송 기업인 RTL그룹 계열 방송국이며, 민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룩셈부르크 정부와도 계약을 맺고 있다(룩셈부르크에는 공영방송이 존재하지 않음). 국제 뉴스보다는 현지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룩셈부르크어로 방송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 RTL의 인터넷 사이트에 5minutes.lu라는 불어 뉴스란이 추가되었다.
- 7) La Presse은 1884년 William-Edmond Blumhart에 의해 창간된 불어권 일간지로 가장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 8) TVA는 불어로 방송되는 캐나다의 민영채널로 그룹 TVA에 속해 있다. 소재는 몬트리올이고, 온타리오와 뉴브런즈윅에서 일부 방송되기는 하지만, 퀘벡이 주 방송지역이다. 그러나 1998년부터 케이블을 통해 캐나다 전역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 9) El Watan은 1990년 과거 El Moudjahid 의 저널리스트들이 모여 만든 불어권 일간지이다. 알제리의 대표적인 저널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1994년 편집장 Omar Belhouche가 Golden pen of Freedom Award를 수상하였다.
- 10) Ennahar TV는 2012년 3월 6일 개국한 알제리의 민영방송으로 국내외의 테마별 뉴스를 전하고 있다. 불어와 영어 사이트 모두 운영하고 있다.

문헌

- 국토지리정보원, 2012, 지명 표준화 편람(제2판),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2013, 국제적 관심지명 조사 및

- 대응방안 연구, 국토지리정보원.
- 권선정, 2004, 지명의 사회적 구성-과거 회덕현의 '송촌'을 사례로, 지리학 연구, 167-181.
- 김걸, 2015, 대한민국 동해의 국제표준 명칭에 대한 발전적 대안 모색,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3), 137-145.
- 김덕주, 1999, 동해 표기의 국제적 논의에 대한 고찰, 서울국제법연구, 6(2), 1-26.
- 김순배, 2012, 지명과 권력: 한국 지명의 문화 정치적 변천, 경인문화사.
- 김순배, 2011, 명명 유연성에 따른 지명 유형과 문화정치적 의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3), 270-296.
- 김순배·김영훈·이상균, 2015, 지명 표기에서 병기 논리의 접근과 시각: 동해 지명 병기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15(1), 1-14.
- 김신, 2011, 동해경계와 표기과정 재조명, 인터넷 비즈니스연구, 12(1), 111-133.
- 김종연, 2011, 한국에 대한 '통상적 영어지명' 형성과정에서의 영국 지리학자들의 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지도학회지, 11(1), 13-24.
- 김종연, 2012, 20세기 초반 영국 정부와 지도학자들이 수집한 한국 관련 지도 자료에 대한 고찰, 한국지도학회지, 12(1), 85-102.
- 남경호·송준호, 2014, 프랑스 민간부문 대상 동해 표기 현황 및 표기명칭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관한 기초연구: 민간 지도제작사, 방송사, 신문사를 사례로, 독도연구소 표기명칭 조사자료(미발표).
- 도수희, 2003, 한국의 지명, 서울: 아카넷.
- 박찬호, 2012, 동해표기의 국제법적 고찰: UNCISG와 IHO 결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53(3), 115-141.
- 서정철·김인환, 2010, 지도 위의 전쟁, 동아일보사.
- 손용택·한관중, 2006, 한반도 주변 주요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지명 왜곡과 오류 실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5(4), 83-106.
- 심정보, 2013, 근대 일본과 한국의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동해 해역의 지명에 대한 고찰, 문화역사지리, 25(2), 37-55.
- 양보경, 2004, 조선시대 고지도에 표현된 동해지명, 문화역사지리, 16(1), 89-111.
- 이기석, 1998, 동해 지리명칭의 역사와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방안, 대한지리학회지, 72, 541-556.
- 이기석, 2008, '동해' 지리 명칭의 역사와 국제적 통용을 위한 방책, 지명의 지리학,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 278-306.
- 이상균·김영훈, 2015, 프랑스 민간부문 대상 동해 표기 현황 및 동향 분석: 민간 지도제작사, 방송사, 신문사를 대상으로, 영도해양연구, 10, 132-167.
- 이상태, 2004,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표기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16(1), 157-164.
- 이승수·오일환, 2010, 조선시대의 동해에 대한 지리인식과 문학적 형상,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5), 441-456.
- 이영민·진중현·박경환·이무용·박배균(윝김), 2011, 현대 문화지리학 주요 개념의 비판적 이해, 논형 (David Atkinson, Peter Jackson, Davis Sibley, Neil Washbourne, 2005, Cultural Geography. IB Tauris.)
- 이영희, 2010, 지명을 통한 장소정체성 재현과 지명영역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2), 110-122.
- 임덕순, 1992, 정치지리학적 시각으로 본 동해지명, 지리학, 27(3), 268-271.
- 정인철, 2010,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지명의 조사 연구, 한국지도학회지, 10(2), 13-27.
- 주성재, 2007, 동해 명칭 복원을 위한 최근 논의의 진전과 향후 연구과제, 한국지도학회지(71), 1-9.
- 주성재, 2009, 토착지명, 지리적 실체, 그리고 인식의 문제: 동해/일본해 표기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44(5), 661-674.
- 주성재, 2010, 동해의 지정학적 의미와 표기 문제, 한국지도학회지, 10(2), 1-11.
- 주성재, 2012, 동해 표기의 최근 논의 동향과 지리학적 지명연구의 과제, 대한지리학회지 47(6), 870-883.
- 최종남·심정보·윤옥경, 2011, 영미권 지도 및 지리교재 제작사의 지명 표기 원칙에 따른 동해해역의 지명표기에 관한 연구, 한국지도학회지, 11(2), 27-37.

- 한상복, 1992, 해양학적 측면에서 본 동해의 고유 명칭, *지리학*, 27(3), 272-277.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8, 지명의 지리학, 푸른길.
- Agnew, M., & Toal, G., 2002, *A companion to political geography*, Blackwell Oxford.
- Hwang, Myong-Chol, 2014, 'Historic Origin of East Sea of Korea and Criminal Character of Having Marked <Sea of Japan>', *Asia-Pacific Journal of Marine Science&Education*, 4(1), Bladivostok, 127-135.
-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1929, Report of the Proceedings of the First Supplementary International Conference, *Monaco*, 9-20 April 1929.
- Kim, Shin, 2004, 'East Sea and IHO: Focused on the Limits of Oceans and Seas', *10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149-161.
- Klinghoffer, Arthur Jay, 2006, *The power of projections: how maps reflect global politics and history*, Praeger.
- Neuyen, Thi Hanh, 2013, 'Vietnam's Actions to Assert and Enforce its Sovereignty over the East Sea during the period 1884~1954: An approach from France's archives', *Southeast Asian Studies*, Hanoi, 15-24.
- Tran, Khanh, 2013, 'Current East Sea disputes: Possible solution', *Southeast Asian Studies*, Hanoi, 3-14.
- Yi, Saangkyun, 2014, 'The Geopolitics of Seas and the Cartography of Naming Seas: The Name "Sea of Japan" Reflecting an Imperialist Ideology', *Asia-Pacific Journal of Marine Science&Education*, 4(1), Bladivostok, 29-43.
- 브뤼셀(벨기에) 신문사 Le Soir, <http://www.lesoir.be>
- 브뤼셀(벨기에) 신문사 La Libre Belgique, <http://www.LaLibre.be>
- 룩셈부르크 방송사 RTL-TV, <http://www.rtl.be/rtltvi/>
- 룩셈부르크 신문사 L'Essentiel, <http://www.lessentiel.lu/fr/>
- 룩셈부르크 방송사 RTL, <http://www.rtl.lu/>
- 퀘벡(캐나다) 신문사 La Presse, www.lapresse.ca
- 퀘벡(캐나다) 방송사 TVA, <http://tva.canoe.ca/>
- 알제(알제리) 신문사 El-Watan, <http://www.elwatan.com/>
- 알제(알제리) 방송사 Ennahar TV, <http://www.ennaharonline.com/fr/>
- **교신** : 이상균,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구관 5층 동북아역사재단(이메일: skyigeo@gmail.com, 전화: 02-2012-6090)
- Correspondence** : Saangkyun Yi,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mgwang Bldg., 81 Tongillo, Seodaemun-gu, Seoul, 03739, Republic of Korea (E-mail: skyigeo@gmail.com, Tel: +82-2-2012-6090)
- (접수: 2016.10.31, 수정: 2016.11.22, 채택: 2016.11.25)